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송정명(강남대학교 강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복싱선수의 진로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복싱선수가 인식한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를 진로태도성숙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회수된 데이터 중 반응 고정화 현상 또는 불성실한 자료와 무기입 자료 29부를 제외한 총 22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유효 표본은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모형 4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은 진로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성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싱선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진로불확실성, 진로불안, 진로태도성숙, 복싱선수

*songjim3@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향후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빠른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는 현대인들은 높은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한다. 특히 복싱선수들은 진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복서의 경력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진로의 폭이 넓지 않다(Melrose, 2019).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복싱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진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많은 연구자들이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김성환, 박재춘, 2017; 이아라, 이주영, 2015; Lin, Wu & Chen., 2015; Shea et al., 2009).

인간이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는 것은 인식하는 미래 환경이나 진로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로불확실성(Career Uncertainty)은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환경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변화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박재춘, 김주섭, 2017; 최도영, 이진창, 2016; Choi, 1997). 진로불확실성은 개인의 삶의 질에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잘못된 진로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De Raaf, et al., 2009). 즉, 진로불확실성은 경력개발과 개인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 적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Daniels et al., 2011). 문제는 많은 복싱선수들이 미래 직업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결정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삶의 과업이다. 그러나 때로

는 진로불확실성으로 인한 막막함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불러올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복싱선수들이 부담감, 걱정, 좌절감, 긴장감을 경험한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장이나 불안함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진로불안이라 한다(Saka, Gati & Kelly, 2008). 적절한 수준의 진로불안은 진로정보탐색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과 의사결정의 실행을 어렵게 하여 만성적인 진로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Germeijs, Verschueren & Soenens, 2006). 따라서 복싱 선수들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복싱선수들의 진로불안 경험과 관련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은 중요한 매개변인이다. 진로태도성숙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적 태도와 인지적 능력,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이다(정민주, 2014).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조태영, 이민순, 2009).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거나 조정해가는 능력이 높다. 또한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능력이 높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다(이지선, 2009). 이는 진로태도성숙의 향상을 통해 취업진로활동에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싱선수의 진로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메카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복싱선수가 인식한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를 진로태도성숙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복싱선수들의 진로불안 개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복싱선수가 경험하는 진로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복싱선수들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2023년 기준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들에게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비밀 유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회수된 데이터 중 반응 고정화 현상이나 불성실한 자료와 무기입 자료 29부를 제외한 총 22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18	53.4
	여	103	46.6
학력	고등학교 졸업	40	18.1
	2년제 대학 졸업	56	25.3
	4년제 대학 졸업	125	56.6
참여기간	5년 미만	61	27.6
	6-10년	98	44.3
	11년 이상	62	28.1
입상경력	없음	68	30.8
	있음	153	69.2
합계		221	100.0

2. 측정도구

첫째, 진로불확실성 척도는 Tomasik와 Silbereisen(2009)이 개발한 진로불확실성 척도를 홍수연과 최윤정(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복싱선수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불확실성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진로불안 척도는 Saka 외(2008)의 EPCD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번안한 민경희와 김봉환(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복싱선수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불안 척도는 책임에 대한 불안 3문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3문항, 과정에 대한 불안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검사(CMI, Career Maturity Identity)를 토대로 연구한 이기학과 한종철(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복싱선수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결정성 3문항, 목적성 3문항, 확신성 3문항, 준비성 3문항, 독립성 3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력, 참여기간, 임상경력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KMO 값은 .862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설명도는 68.985%로 나타났다. 이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 한 결과, .907의 값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KMO 값은 .843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설명도는 82.745%로 나타났다. 이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 한 결과, .855-.929의 값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셋째, 진로불안에 대한 타당도

표 2. 진로불확실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진로불확실성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 함	.886
예측하지 못한 사건 및 환경들은 나의 진로 계획을 방해함	.874
원하지 않지만 임시직이라도 얻고자 더 많이 준비해야 함	.851
실직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836
나의 진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짐	.775
요즘 나에게서는 취업 기회가 거의 없음	.752
<i>eigenvalue</i>	4.139
<i>% of Variance</i>	68.985
<i>Cumulative %</i>	68.985
<i>cronbach's α</i>	.907
<i>KMO</i> =.862 Bartlett's $\chi^2=904.085$, <i>df</i> = 15($p<.001$)	

표 3. 진로불안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불확실 성불안	과정 불안	책임 불안
진로선택 같이 중요한 결정을 이 시점에서 내리기 두려움	.892	.284	.164
해야할 공부나 직업 선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	.868	.267	.256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의 책임이 따르는 것에 두려움	.824	.231	.329
진로 의사결정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을 겪는게 걱정	.155	.885	.103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걱정	.280	.879	.129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걱정	.286	.772	.240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내 능력과 맞지 않을까봐 두려움	.243	.096	.876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내 선호와 맞지 않을까봐 두려움	.092	.290	.821
고려하고 있는 진로가 내 성격과 맞지 않을까봐 두려움	.379	.076	.801
<i>eigenvalue</i>	2.622	2.456	2.370
<i>% of Variance</i>	29.132	27.284	26.329
<i>Cumulative %</i>	29.132	56.416	82.745
<i>cronbach's α</i>	.929	.876	.855
<i>KMO</i> =.843, Bartlett's $\chi^2= 1416.589$, <i>df</i> = 36($p<.001$)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KMO*값은 .808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설명도는 78.058%로 나타났다. 이후 신

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 한 결과, .735-.912의 값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4. 진로태도성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확신성	독립성	목적성	준비성	결정성
확실한 믿음이 없어 성공을 의심	.923	.075	.098	.143	-.012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잘할 자신 없음	.920	-.023	.081	.140	.030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음	.849	.091	.226	.138	.077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함	.068	.896	.168	.041	.056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	.028	.890	.194	.012	.102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	.044	.851	.108	.256	.004
일류 직장에 취업	.203	.214	.877	.126	.026
직업을 선택할 시 승진 기회를 고려	.149	.184	.836	.226	.091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함	.100	.137	.754	.351	.170
내가 원하는 직종인과 대화하기 원함	.218	.109	.207	.826	.153
성공한 사람을 따라함	.284	.094	.208	.766	.152
원하는 직업의 성공한 사람 이야기 관심	.010	.144	.306	.622	.198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없음	-.027	.148	.113	-.011	.882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 어려움	.070	.063	.156	.200	.778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막막	.058	-.083	-.053	.407	.678
<i>eigenvalue</i>	2.637	2.506	2.401	2.178	1.987
<i>% of Variance</i>	17.580	16.709	16.006	14.517	13.246
<i>Cumulative %</i>	17.580	34.289	50.295	64.812	78.058
<i>cronbach's α</i>	.912	.884	.874	.780	.735

KMO= .808 Bartlett's $\chi^2 = 1915.953, df = 105(p < .001)$

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221의 데이터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로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4.1v 모형 4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정규성의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왜도는 $-0.063 \sim 1.602$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첨도는 $-0.678 \sim 3.766$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인 왜도 ± 2 , 첨도 ± 7 의 기준이 충족되어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정규성 검증 결과

	<i>n</i>	<i>M</i>	<i>SD</i>	왜도		첨도	
				<i>M</i>	<i>SD</i>	<i>M</i>	<i>SD</i>
진로불확실성	221	1.831	.668	.636	.164	.210	.326
결정성	221	2.193	.882	.695	.164	.476	.326
목적성	221	2.225	.852	.754	.164	1.225	.326
확신성	221	2.855	.955	.049	.164	-.526	.326
준비성	221	2.679	.921	-.022	.164	-.676	.326
독립성	221	1.646	.720	1.602	.164	3.766	.326
책임불안	221	2.097	.776	1.137	.164	2.874	.326
불확실성불안	221	2.555	1.008	.097	.164	-.678	.326
과정불안	221	2.634	.917	-.063	.164	-.452	.326

2. 상관관계분석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상관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a	b	c	d	e	f	g	h	i
a	1								
b	.216**	1							
c	.271**	.269**	1						
d	.116	.124**	.346**	1					
e	.279**	.442**	.563**	.394**	1				
f	.586**	.151*	.402**	.144*	.303**	1			
g	.583**	.172*	.388**	.208**	.386**	.423**	1		
h	.279**	.397**	.394**	.294**	.512**	.148*	.546**	1	
i	.340**	.200**	.306**	.304**	.475**	.293**	.404**	.553**	1

* $p < .05$, ** $p < .01$

a- 불확실, b- 결정성, c- 목적성, d- 확신성, e- 준비성, f- 독립성, g- 책임불안, h- 불확실성불안, i-과정불안

3. 진로불확실성, 진로불안 간의 인과관계

<표 7>은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진로불확실성이 진로에 대한 불안의 하위요인인 책임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회귀식이 유의수준 .001($F = 112.590$)에서 진로불확실성이 책임에 대한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책임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은 $\beta = .583$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의 하위요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회귀식이 유의수준 .001($F = 18.544$)에서 진로불확실성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7.8%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은 $\beta = .279$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의 하위요인인 과정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회귀식이 유의수준 .001($F = 28.637$)에서 진로불확실성이 과정에 대한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11.6%로 나타났다.

표 7.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일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C.R.
책임에 대한 불안	(상수)	.857	.124		6.888
	진로불확실성	.677	.064	.583	10.611***
	F= 112.590***, R ² = .340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상수)	1.783	.191		9.350
	진로불확실성	.422	.098	.279	4.306***
	F= 18.544***, R ² = .078				
과정에 대한 불안	(상수)	1.779	.170		10.471
	진로불확실성	.467	.087	.340	5.351***
	F= 28.637***, R ² = .116				

*** $p < .001$

분산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책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불확실성은 $\beta = .340$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복싱선수들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

은 5000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진로불확실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B = .362(p < .000)$, 진로태도성숙은 진로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 = .612(p < .000)$, 진로태도성숙은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 간의 총 효과는 $B = .522(p < .000)$ 였으나, 매개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이 투입되면서 진로불확실성에서 진로불안 간의 경로의 직접효과가 $B = .300(p < .000)$ 으로 감소하였고 진로불확실성에서 진로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8.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검증

	<i>coeff</i>	<i>se</i>	<i>t</i>	<i>p</i>	<i>LLCI</i>	<i>ULCI</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인: 진로태도성숙)						
constant	1.656	.105	15.799	.000	1.450	1.863
진로불확실성	.362	.054	6.734	.000	.256	.468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인: 진로불안)						
constant	.460	.163	2.822	.005	.139	.781
진로불확실성	.300	.063	4.777	.000	.176	.424
진로태도성숙	.612	.072	8.512	.000	.470	.753

표 9.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검증

	<i>Effect</i>	<i>BootSE</i>	<i>BootLLCI</i>	<i>BootULCI</i>
Total effect	.522	.066	.392	.652
Direct effect	.300	.063	.176	.424
Indirect	.222	.047	.136	.320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은 진로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싱선수들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높은 진로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와 불안, 진로 관련 어려움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김경욱(2009), 김나래와 이기학(2012), 신수진과 홍혜영(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복싱선수들이 자신의 진로 관련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이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 결정과 관련된 심리적 불편감과 긴장감 또한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류미경과 김재철(2016)은 진로탐색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불안이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복싱선수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복싱선수의 진로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싱선수들이 진로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만성적인 진로 미결정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Germeijs, Verschueren & Soenens, 2006), 복싱선수들의 진로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복싱선수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 및 지원정책의 영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성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불확실성이 높다면 진

로목적이거나 확신이 흐려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진로태도성숙의 수준도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이보림, 2018; 정유정, 2017). 또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김경옥, 2009; 김수진, 2018).

진로태도성숙은 생애 동안 나타나는 진로발달 수준으로써 직업탐색, 준비, 종사, 중단과 같은 발달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태도와 인지적 준비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Super, 1984). 또한 개인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진로 관련 문제들을 대처하는 준비도이다(Fouad, 1988). 이에 진로태도성숙은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적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한수민, 오인수, 2014). 조민제(2010)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불안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정민주(2014)의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의 확산성은 진로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목적성은 진로불안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얻고자하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진로불안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남규와 박계배(2015)는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성향성, 독립성 요인이 진로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복싱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싱선수들의 진로태도성숙을 높이고 진로불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불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복싱선수들에게 부족한 진로탐색, 진로선택 등의 진로발달 문제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복싱선수들의 진로불안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더불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복싱선수의 진로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메카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복싱선수가 인식한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를 진로태도성숙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회수된 데이터 중 반응 고정화 현상이 있거나 불성실한 자료와 무기입 자료 29부를 제외한 총 22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유효 표본은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모형 4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은 진로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싱선수의 진로불확실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성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복싱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싱선수들의 진로태도성숙을 높이고 진로불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복싱협회에 등록된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전체 복싱선수나 타 종목의 스포츠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없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과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을 매개변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진로태도성숙 외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불확실성과 진로불안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도 있다. 이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복싱선수들을 위한 진로교육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나래,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 비교 경향성과 진로 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김성환, 박재춘(2017). 예비창업자의 진로불확실성, 진로교육, 자기결정성, 창업의지 및 기업가정신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2(1), 73-85.
- 김수진 (2018). **고등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청소년-부모 진로일치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미경, 김재철(2016). 고등학생의 진로 불확실성 수용과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수용전념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8.
- 민경희, 김봉환. (2014). 4 년제 대학생용 정서·성격적 진로문제 (EPCD) 척도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7(2), 109-131.

- 박재춘, 김주섭. (2017). 진로불확실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6), 201-225.
-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불안의 관계: 정서 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95-116.
- 이기학, 한중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80.
- 이보림. (2018). **여대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아라, 이주영.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따른 진로결정 차이. **아시아연구**, 16(1), 861-874.
- 이지선. (2009). **사회복지전공 학생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민주. (2014).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 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1), 81-104.
- 정유정. (2017).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남규, 박계배. (2015). 예술 전공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 불안 및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춤과 과학기술**, 31, 143-163.
-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5(2), 47-60.
- 조태영, 이민순. (2009). 항공 운항서비스 전공대학생의 직업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차이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7(1), 69-84.
- 최도영, 이건창. (2016). 의사결정프로세스를 고려한 불확실성의 인지적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45(3), 829-847.
- 한수민, 오인수. (2014).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1), 261-281.

- 홍수현, 최윤정(2018).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목표 참여, 목표 이탈과 자기 평가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19(6), 155-173.
- Choi, H. K. (1997).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y on problem-solving*. Doctorate thesis. Choongang University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 Use Manual*. California: McGraw-Hill.
- Daniels, L. M., Stewart, T. L., Stupnisky, R. H., Perry, R. P. & LoVerso, T. (2011), Relieving career anxiety and indecision: The role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control and faculty affiliation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 409-426.
- De Raaf, S., Dowie, M. & Vincent, C. (2009). *Improving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ng workers: Design of a randomized experiment*, Available at: http://www.srdc.org/uploads/careermotion_design_rpt.pdf
- Fouad, N. A. (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1), 49-59.
- Germeijs, V., Verschueren, K., & Soenens, B. (2006). Indecisiveness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Longitudinal associations and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397.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 Lin, S-H., Wu, C-H., & Chen, L. H. (2015). Unpacking the role of self-esteem in career uncertainty: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3), 231-239.
- Melrose, S. (2019). Career-Ending Injuries in Professional Boxing: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Journal of Sport Medicine*, 29(5), 389-397.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03-424.
- Shea, M., Ma, P. W. W., Yeh, C. J., Lee, S. J., & Pituc, S. T. (2009). Exploratory studies on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for urban chinese immigrant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4), 457-477.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 Tomasik, M. J., & Silbereisen, R. K. (2009). Demands of social change as a function of the political context, institutional filters, and psychosocial resourc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1), 13-2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Anxiety in Boxers

Song, Jeong-Myeong(Kangnam Univ.)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whether career attitude matur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uncertainty and career anxiety perceived by boxers in order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mechanism related to career anxiety in boxers. To conduct th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o boxers registered with the Korea Boxing Association, an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oth online and offline.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Among the collected data, a total of 221 data were selected as the final valid sample, excluding 29 copies of data with reaction fixation or insincere data and uninformed data. The final valid sample was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In addition, Hayes (2013)'s SPSS PROCESS macro model 4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t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career uncertainty of boxe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nxiety. Second, in the effect of career uncertainty on career anxiety in boxers,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Key words: Career Uncertainty, Career Anxiety, career attitude maturity, Boxers

논문투고일 : 2023.06.30

심사일 : 2023.08.13

심사완료일 : 2023.08.28